

제35회 장수군민의날

의암 주논개

The Euiam Ju Nongae Festival
-Memorial of her 428th birth

- 기간 _ 2002.10.7(월)~10.10(목)4일간
- 장소 _ 장수군 일원

대축제



- 주최 _ (사)의암 주논개정신선양회, 장수군, KBS전주방송총국
- 후원 _ 전라북도, 전주MBC, JTV, 기독교방송, 전북일보, 전북도민일보, 전라일보, 새전북신문, 매일전북

의
암
주
논
개
약
사



- 1574년(1세) 현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에서 탄생.
- 1578년(5세) 부친 주달문 사망 후,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의탁함. 숙부는 어린 조카를 김풍헌 집에 민며느리로 보낸다는 조를 하고 금품을 받아 달아남. 뒤늦게 이 사실을 안 어머니는 논개를 데리고 친정으로 피했다가 체포되어 장수 관아에 수감됨.
- 1579년(6세) 이른봄, 장수현감 최경희의 심리로 재판이 열림.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돌아갈 곳이 없는 모녀는 침방 관비를 자청, 김씨 부인의 배려로 내아에서 심부름을 하며 살게 됨. 늦가을, 모녀는 무장현감으로 전직된 최경희를 따라감.
- 1582년(9세) 최경희가 영암군수로 전직되자 따라감.
- 1587년(14세) 최경희가 사도시정으로 갈 때 수행함.
- 1590년(17세) 최경희의 부실이 됨.
최경희가 모친상을 당하여 고향 화순으로 갈 때 논개는 고향 장수로 와서 기다림.
- 1592년(19세) 최경희가 전라우도 의병장으로서 장수로 와 의병을 모집하고 훈련시킬 때, 논개는 의병 훈련 뒷바라지함.
- 1593년(20세) 최경희가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하여 2차 진주성 전투를 할 때 논개는 성안에서 전투의 뒷수발을 함. 성이 함락되고 최경희가 순국한 뒤, 논개는 왜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를 의암으로 유인하여 남강에 투신 순절함.

군정방침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장수

- 1. 깨끗하고 신뢰받는 열린 군정
- 1. 찾아서 도와주는 복지행정
- 1. 특색과 경쟁력있는 농업소득
- 1. 환경과 어우러진 지역개발
- 1. 전통문화 창달과 관광진흥

군민헌장

우리 장수군민은 자랑스러운 삼절의 빛난 얼을 계승하고 밝고 맑은 심성으로 산자수명한 내 고향을 풍요롭게 가꾸는 주인이 된다.

- 1. 우리 군민은 자유를 존중하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민주문화를 꽃피운다.
- 2. 우리 군민은 양심과 신의를 지키고 협동봉사하며 공공질서를 생활화한다.
- 3. 우리 군민은 근면 성실하며 진취적인 의지로 잘사는 내고장을 개척한다.
- 4. 우리 군민은 심신을 연마하여 건전한 취미와 정서순화로 행복한 삶을 영위한다.
- 5. 우리 군민은 전통문화를 계발하고 서로 화합하여 내 고향 사랑에 앞장선다.



군의 심볼



군의 나무 / 소나무



군의 새 / 비둘기



군의 꽃 / 산철쭉



장수의 노래

이기반 시
이준복 곡

장 안 산 굽이 굽이 힘 찬 맥박 - 이
 풀 마 다 즐 기 차 게 흠 러 님 치 - 니
 정 답 게 아 - 름 다 운 우 리 의 터 - 전
 행 복 의 씨 앓 뿌 러 서 로 가 꾸 - 세 장 하
 고 - 거 록 하 다 삼 절 의 고 - 장 새 름
 게 - 빛 을 내 는 희 망 의 장 - 수

2. 분수령 맑은물에 인심도 좋아 (후렴)
 복되게 이어받은 조상의 유산 장하고 거룩하다 삼절의 고장
 아끼고 사랑하며 하나로 뭉쳐 새롭게 빛을내는 희망의 장수
 이땅의 낙원으로 번영이루세

의암 주논개님의 유적



◀ 생가지 사적불망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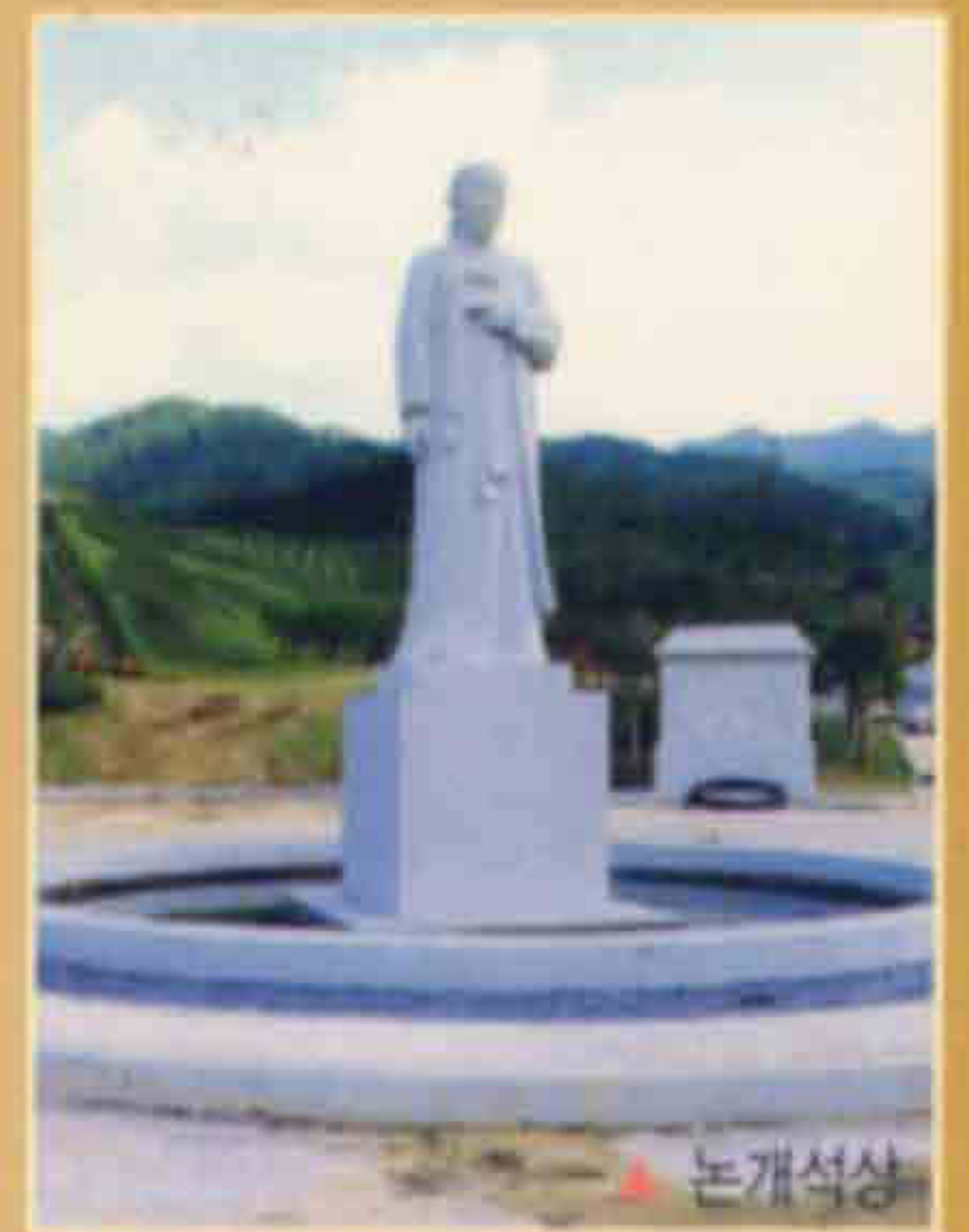
▲ 논개 생장향수명비



의암사 기념관 ▶



◀ 단아정



▲ 논개석상



▲ 논개생가



▲ 의랑루



▲ 최경희장군추모비
의암주논개사적불망비



◀ 의암 주논개 생가지



◀ 의암사

논개는 이름, 호는 의암, 성은 신안 주씨이며, 장수군 장계면 대곡리 주촌 마을에서 아버지 주달문과 어머니 밀양 박씨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가문은 대대로 학덕이 높은 훈장집으로 동민의 존경을 받았던 뼈대 있는 집안이었다. 특이하게도 논개는 4갑술(갑술년, 갑술월 갑술일, 갑술시 - 1574.9.3. 밤)의 사주를 타고 태어났다. 아버지 주달문은 딸아이의 사주를 짚어보고 계집애지만 크게 될 인물이라고 기뻐하였다. 이름을 논개라고 지은 것은 딸을 술(戌)시에 낳았으니까 개를 놓은(낳은의 사투리) 것과 같고, 거꾸로 읽으면 '놓은 개', 즉 '논개'가 되므로 그렇게 이름 붙이면 역신도 시샘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서였다. 논개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영특하여 부모의 가르침을 잘 따랐으며 나이에 비해 성숙하였다. 가난했지만 화목



한 가정이었다. 논개 나이 다섯 살 되던 해에 뜻하지 않게 아버지를 여의었다.

의지할 곳 없던 모녀는 한 마을에 사는 숙부 주달무 집에 몸을 의탁하게 되었다. 그런 어느 날, 숙부는 노름으로 돈을 탕진하고 이웃 마을에서 밥술깨나 먹고 사는 김풍현에게 찾아가서 조카를 믿며느리로 몰래 팔고 달아났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논개 모녀는 부랴부랴 외가로 일시 피신했으나 김풍현의 제소로 장수 관아로 끌려가 재판관을 받게 되었다. 이때의 재판관은 최경희 현감이었다. 최현감이 자초지종을 캐보니 달아난 숙부 주달무에게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논개 모녀를 무죄 방면했다. 그러나 갈 곳 없는 두 모녀를 최현감은 내아에서 잔심부름을 하면서 지내도록 배려했다. 이런 운명적인 인연으로 최경희와 논개는 만나게 되고 최현감집 식솔이 되었다. 논개는 잔심부름이 끝나는 대로 틈틈이 김씨 부인이 일러준 충효열의 뜻을 가슴 깊이 새겼다.

의암 주논개님이 태어난 순절

세월이 흘러서 논개 나이 17세가 되던 1590년 최경희가 담양부사로 재직 할 때 두 사람은 부부의 예를 올렸다. 그 해에 최경희는 모친상을 당하여 관직을 사임하고 고향 화순으로 가면서 논개를 고향 장수로 보냈다.

2년 뒤 임진년(1592)에는 역사상 980여 회의 외침 중 가장 치참했다는 임진왜란이 발발했다. 상중인 최경희는 전라우도 의병장이 되어 옛날 현감을 지냈던 장수에 들러 의병을 모집하고 논개도 모셨다. 실로 2년 만의 해후였다. 최 의병장이 월강리 앞 들판에 의병청을 설치하고 의병들을 훈련시킬 때 논개는 동네 부인들을 모아서 의병들의 수발을 들었다. 최 의병장은 훈련된 500여 정예부대를 골(鞮)자부대로 이름짓고 무주 쪽으로 진격한 뒤 무주 우지치전투에서 첫 대승을 거두고 여세를 몰아 산음, 지례, 개령, 성주 등 경상도 일대를 누비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를 거두었다.

1592년 10월, 1차 진주성 전투를 승리로 이끌게 된 데에는 최경희가 이끄는 호남 출신 의병들의 성외곽에서의 맹활약이 크게 주효했던 것이다. 최경희는 그간의 의병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1593년 4월에 경상우도 병마절도사로 영전되어 진주성으로 입성했다. 그 소식이 장수에 머물고 있던 논개에게도 들려왔다. 논개는 벅찬 가슴을 억누르고 한시바삐 진주로 떠날 준비를 서둘렀다. 남북으로 변장을 하고 진주로 가는 도중에는 많은 우여곡절을 겪기도 했다. 오랜만에 논개를 본 최 병사는 한없



어나서 남강에서 기까지

이 반가웠지만, 회포를 나눌 겨를이 없었다. 10만이 넘는 왜군이 진주성으로 몰려오고 있다는 첩보를 접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대비책을 강구하느라 동분서주해야 했던 것이다.



6월 19일, 드디어 왜군은 10만여 대군을 사방으로 나누어 진주성을 본격적으로 공격해왔다. 11일간의 피비린내 나는 혈투 끝에 진주성은 무너지고 7만에 가까운 민관군의 시체가 산을 이루었다. 성은 아수라장으로 초토화됐다. 최경희, 김천일, 고종후 등 진주성 3장사는 성이 함락되는데 대한 책임 지고 왕이 계신 북쪽을 향해 하직인사를 올린 후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국했다.

한편 전투가 한창일 때 논개는 성안에서 수발을 열심히 들었지만, 성을 빠져나가 후일을 도모하라는 최병사의 엄명에 성을 빠져나와 외진 곳에 은신하면서 전황을 살폈다. 성이 함락되고 최경희 병사가 순국했다는 소식을 접한 논개는 무엇인가 비장한 결심을 했다. 마침 칠월 칠석에 왜군이 촉석루에서 진주 관기들을 불러놓고 전승 축하연회를 갖는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논개는 이때를 놓칠세라 마음에 다지면서 관기들 틈에 끼여 연회장까지 들어갈 요량으로 관기들이 촉석루에 들어가는 시간과 길목 등을 정확히 알아두었다. 그리고는 몸에 지니고 있던 금불이로 여름옷 한 벌을 곱게 장만 하고 가락지 등 필요한 물건도 구했다.

드디어 그날이 왔다. 논개는 관기처럼 곱게 단장하고 시간에 맞춰 길목에서 있었다. 논개는 관기들이 촉석루를 향해 들어갈 때 뒤에서 천천히 따라 가다가 발길을 돌려 촉석루 아래 강가의 바위 쪽으로 내려갔다. 연회장으로 가면 정체가 탄로날 위험성이 있으니 조금 떨어진 곳에서 요염한 자태를 드러내어 상대방을 유인해보자는 계략이었다.

연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분위기가 무르익어 갔다. 술에 취한 왜장들이 문득 강가의 바위 쪽을 내려다보았다. 웬 선녀처럼 아름다운 젊은 여인



이 강가의 바위 끝에 서서 자기들을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는 것이었다.

왜장들은 한눈에 반하여 금시라도 여인에게 달려가고 싶었지만 정체를 몰라서 망설이고 있었다. 돌연 육척장신의 체격이 장대한 왜장 하나가 논개쪽으로 다가가면서 자기에게로 오라며 소리쳤다. 논개는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손짓을 하면서 왜장을 유인했다. 왜장은 논개의 아름다운 자태에 매혹되어 자기도 모르게 논개 앞으로 다가갔다. 논개는 미소를 지으며 손에 가락지를 낀 팔을 벌려 기쁘게 맞이하면서 왜장을 껴안으며 도도히 흐르는 남강에 투신 순절했다. 논개가 살해한 왜장은 힘세고 용맹스럽기로 유명한 맹장 게야무라 로쿠스케(毛谷村六助)였다. 논개가 순절한 바위를 후인들이 의암이라 이름짓고 논개와 동일시하여 호가 되었다.



의암주논개



대축제 일정표

구분	오전	오후	야간
10_7 (월)	<공설운동장> ■군민체육대회(9종목) 09:00~17:00 • 축구, 배구, 씨름, 협동줄넘기, 삼절마라톤, 공차고돌아오기, 투호, 고리걸기, 400m계주		<의암공원> ■군민퍼레이드 18:30~19:20 ■전야제 19:30~21:30 • 축제 주관의 불점등 • 전야 음악회 • 불꽃놀이
10_8 (화)	<의암공원> ■논개제례 09:00 ■기념식 10:00	<의암공원> ■논개 충절무, 국악공연 12:00~14:00 ■청소년희망페스티벌 • 15:00~18:00 • 논개고을 장원급제 • 청소년 음악·댄스공연 • 인기가수 초청 공연	<의암공원> ■주 논개 선발 19:00~21:00
10_9 (수)	<의암공원> ■수다 콘서트 10:00~11:00	<의암공원> ■호남 좌도농악 시연 13:00~15:00 ■논개 메이크업쇼 15:00~17:00	<의암공원> ■군민화합한마당 18:30~21:00 • 군민노래자랑 • 초청가수 공연 • 캠프파이어, 강강수월래
10_10 (목)	<논개생가지> ■장안산 등반대회 10:00~15:00 ■논개추모 여자씨름대회 및 군민 주부가요열창 10:00~15:00		
부대행사	■의암백일장(논개생가지) 9. 27 ■군수배 테니스대회(장수 테니스장) 10.8 ■무진장 게이트볼대회(노하숲 게이트볼장) 10. 9		■한시백일장(장수향교) 10. 8 ■전북 남녀궁도대회(벽계정 궁도장) 10. 8
상설행사	■논개고을 전통 체험관 ■전국 사진 공모전 및 사진 촬영대회	■풍물야시장 ■농특산물 전시판매 ■사진, 시화, 서예 전시회	■장수사과 특별 기획전 ■사과시식

| 식사 |

오늘은 충절(忠節)의 표상(表象)으로 많은 국민들의 존경과 칭송을 한 몸에 받고 있는 의암 주논개님의 탄신 428주가 되는 뜻깊은 날이며 이 날을 기리고자 군민의 날로 지정한지 제35회가 되는 날입니다.



논개님께서 기생을 가장하고 왜장 게야무라로구스께를 끌어 안고 진주 남강 푸른 물에 투신함으로써 순절(殉節)하기 까지 자신의 생명을 초개처럼 버렸으나 그는 오히려 누구보다 충의(忠義)로운 사람으로 역사속에 자신을 드높이게 되었고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했지만 그는 오히려 죽지않고 역사속에 다시 부활하여 40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민족의 혼을 일깨운 승리의 삶을 산 의인(義人)이었다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뜻깊은 날을 기리기 위해 마련한 축제행사에 바쁘심을 뒤로 하시고 귀중한 시간을 내어 서울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하여 주신 내외귀빈과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군민의 장을 수상하신 여러분께 축하드립니다.

올해의 축제 행사는 제례봉행을 비롯하여 군민 체육대회, 주논개 선발 등 20여개 다채로운 행사가 의암 공원을 비롯하여 군내 일원에서 4일간에 걸쳐 군민과 출향인이 한데 어우러지는 큰잔치 한마당이 펼쳐질 것입니다.

이 때에 너와 내가 아닌 우리 모두 화합하여 청정하고 선택받은 내 고장 푸른 논개 곁에 밝은 내일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끝으로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도 의암 주논개 대축제와 군민의 날 행사에 동참해 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8일

(사)의암주논개정신선양회장 장 명 수

| 기념사 |



희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귀빈 여러분!

장마와 태풍속에서도 오곡이 무르익어 가는 결실의 계절을 맞아 논개 의인의 탄신 428주와 제35회 장수군민의 날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먼저 루사 태풍으로 가슴 아파하는 군민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피해복구에 참여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사회 각 분야에서 장수군의 명예를 드높인 공로로 『장수군민의 장』을 수상하신 네 분께도 축하를 드립니다.

지난 1955년 10월 장수 남산공원에 군민들이 구름과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인 6.25전쟁이 끝나고 군민이 기근에 빠져 있으면서도 1954년 논개 사당을 건립하기 위해 『장수의암주논개사적보존회』를 설립하여 군민의 성금으로 의암사를 준공, 장수군민의 자존심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의암사 공사기간:1954. 10. 19~1955. 9. 20)

임진왜란 당시 나라를 구한 두 영웅이 있다면, 이순신 장군과 진주성 전투에서 죽음으로 일본군의 전열을 무너뜨린 철의 여인 논개 의인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동안 우리 군에서는 철의 여인 논개 의인의 정신을 기리기 위해 선양사업을 총정리하고 지구촌의 이웃 모두가 알 수 있도록 모든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3년도 부터는 논개 관련 홈페이지를 통해 모든 자료를 제공하고 논개 의인의 일대기를 지상 중계할 계획에 있어 바로 이곳에서 논개 의인을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이제 우리 장수군은 미래가 보입니다. 희망이 보입니다. 또한, 희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서울과 부산이 2시간 반이면 갈 수 있는 교통의 중심지가 바로 그것이요, 장안산 자락의 깨끗한 자연환경 우리의 재산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난 7월1일 희망의 미래를 만들기 위해 장수군수로 취임한 이후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장수』를 군정방침으로 정하고, 군정의 방향을 생명산업 즉 환경과 어우러진 농업발전과 복지행정을 펼쳐 나가하고자 합니다.

또한, 장수군의 가장 큰 현안사업으로 군민여러분이 걱정하고 힘을 결집해준 경주마육성목장도 어려움은 있지만 잘 극복해 나가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군민의 뜨거운 성원과 힘을 모아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부터 3일간 치러 질 논개 대축제에 군민 모두가 주인이 되어 군민의 자긍심을 보여주고, 수해로 입은 마음의 아픔도 모두 털어버리시고 좋은 시간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8일

장수군수 최용득

| 환영사 |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의 시기에 나라를 구하기 위해 왜장을 꺼안고 진주 남강에 몸을 던진 의암 주논개, 임진왜란의 부끄러움을 씻고 민족혼을 불러 일으킨 겨레의 혼, 논개님의 탄신 428주년을 기념하는 의암 주논개 대축제 개최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임진왜란 뿐만 아니라 유사이래 모든 전란을 통틀어 충의와 절개를 빛낸 여인들이 많았지만 그 중에서 논개님은 우리의 국난극복사상 가장 뚜렷한 위업을 남긴 한국여인의 영원한 표상입니다.

논개님이야말로 죽되 죽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버렸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된 승리의 삶을 산 의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논개님을 새롭게 인식하고 평가하여 그 숭고한 정신을 널리 선양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대축제가 지역화합의 계기가 되고 전국 규모의 문화행사로 발전되도록 기원하
서, 행사를 준비하신 관계자 여러분과 이 자리에 참석하신 모든 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2002년 10월 8일

한국방송 전주방송총국장 김 상 준

| 축하 |



의암 주논개님께서 이세상에 오신지 올해로 428년을 맞아 님의 거룩한 뜻을 기리는 축제와 서른 다섯 번째로 맞는 장수 군민의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극심한 수해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금년 농사를 잘 일구어낸 장수 군민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립니다.

예로부터 장수는 충·효·열의 고장으로 잘 알려진 곳이며 기상이 높고 청아하여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된 고장입니다.

특히 주논개님이야 말로 죽되 죽지 않았으며 모든 것을 버렸지만 오히려 모든 것을 얻게 된 승리의 삶을 산 의인으로 400여년이 지난 오늘에도 충절의 표상으로 많은 국민들의 존경과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장수군민들은 이처럼 유구한 충절의 땅에서 물려받은 훌륭한 문화유산을 잘 가꾸고 보존해 오면서 오늘의 자랑스런 장수군을 만들어 왔습니다.

여러분의 슬기와 노력으로 이 고장이 전국 제일의 사과 명산지로 발돋움하였고 맑은 물과 푸른 숲이 어우러진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장수군은 앞으로도 발전가능성이 무한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경주마 육성목장이 건설되면 장수군은 새로운 승마의 메카로 발전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의암 주논개 축제가 앞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문화예술축제로 발전하고, 장수군민의 마음을 하나로 묶고 내일의 잘사는 장수군을 건설하는 힘찬 도약의 발판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행사를 준비하느라 수고하신 논개정신선양회와 장수군에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가정 가정마다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8일

전라북도지사 강 현 욱

| 축사 |



태풍이 남기고 간 상처가 우리 농심들을 마냥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늘은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나날이 높아만 가고, 푸르다 못해 시릴 정도입니다. 머지않아 육십령 고개마루며 팔공산 기슭까지 붉은 색조로 물들일 듯 가을의 기세가 자못 드높습니다.

우리 장수는 의와 충절의 고장으로 장수사람들의 가슴속에는 언제나 선열들의 고귀한 정신세계를 흠모하는 사상이 깃들어 있습니다. 산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경제적 가치가 모든 것에 우선하는 사회 흐름인 듯이 보이나, 결국에는 우리들의 정신속에 배어 있는 충만한 정신문화 유산이야말로 진정한 가치로서 우리들 가슴속에 살아 숨쉬리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암담한 농촌의 현실과 길이 잘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한 갑갑한 심정은 여러분이 아저나 대동소이할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희망은 절망속에서 꽃피는 것이라 한 그 경구를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어려운 오늘을 얼마나 슬기롭게 헤쳐나갈 것인지에 대한 우리 모두의 냉철한 지혜가 그 어느때 보다도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척박한 농토임에도 오랜 세월 이웃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끌어 왔으며, 나라가 누란의 위기에 처했을 때는 모두가 나서서 호국의 기개를 드높인 자랑스런 고장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급속히 변모해가는 물질문명의 흐름속에서도 우리는 잃어서는 안될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의 선조로부터 이어 받았으며, 앞으로 또 우리 후대들에게 자랑스런 문화로서 내려 줄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장수인의 영원한 표상이신 논개님의 정신과 얼을 기리는 우리 군민 모두의 잔칫날입니다. 한편 어우러짐 속에서 답답한 우리의 현실을 헤쳐나가는 올바른 지혜를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의 하나됨을 느껴봅시다. 그저 매해 돌아오는 축제가 아니라 해를 거듭할수록 우리 장수인의 문화유산을 올곧게 세어나가는 큰 축제로 자리매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신 장수군 공직자 여러분들과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 제단체 여러분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2002년 10월 8일

국회의원 정세균

| 축사 |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최용득 군수님, 바쁜 의정활동중에도 참석해주신 정세균위원장님, 장명수 논개정신선양회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오늘 주논개님의 탄신지인 장수에서 탄신 428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와 더불어 극심한 수해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금년 농사를 잘 일구어낸 가운데 군민의 날을 맞이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

립니다.

논개님은 임진왜란 당시 진주성 전투에서 7만 민·관·군이 성을 지키기 위해 결사항전을 펼치다가 마침내 모두 순절하게 되자 기생으로 가장하여 왜군 장수를 껴안고 강물에 투신하여 나라와 백성들의 원수를 갚음으로써 모든 이의 추앙을 받고 있는 충절의 표상입니다.

의암 주논개님의 출생지인 장수군에서는 '96년부터 금년까지 7년에 걸쳐 논개 생가와 사당에 대한 확장 및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적자료정리 작업을 비롯한 다양한 사업과 더불어 매년 탄신일인 음력 9월 3일을 전후하여 기념축제를 개최해오고 있습니다.

이같이 논개님의 숭고한 애국정신을 기리고 전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축제행사를 만들고 이끌어 나가는 논개정신선양회 회원 여러분과 군민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우리 여성부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여성정책을 기획, 조정하고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며, 가정폭력, 성폭력방지와 남녀차별의 금지·구제 등 여성의 인권보호와 남녀평등 사회를 이루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성으로서 역사상 큰 족적을 남긴 논개님의 충절정신을 기리기 위한 이번 축제는 우리나라 여성들의 권익과 자부심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논개 제례를 비롯하여 논개선발, 논개충절무, 논개 추모 여자씨름대회 등 의암 주논개 대축제의 다양한 행사들이 우리 여성부의 정책목표인 여성의 권익신장 및 남녀평등 사회의 실현과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하나 하나의 축제내용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앞으로 더욱 발전하여 전국적인 명성을 가진 문화예술축제로 성장하고 아울러 남녀평등사회 실현에 초석이 되는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면서 참석하신 내·외 귀빈, 군민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8일
여성부차관 김성진

| 축사 |



평소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자리를 함께 하신 내외귀빈여러분!

오늘 국화향기 그윽하고 풍요로움이 가득한 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탄신 428주년 의암 주논개 대축제 및 제35회 장수군민의 날』을 개최하게 된 것을 군민과 함께 매우 기쁘게 생각 하며 경하해 마지않습니다. 특히 제15호 태풍 『루사』로 인해 우리 지역에서도 주택이 침수 되고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입는 등 그 어느때 보다 힘든 한해로 군민 여러분들께서 흘리신 땀방울이 그 어느해보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해인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금년 한 해 농사를 알차게 마무리 해 주신 군민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의 행사를 경축하고 빛내주시기 위해 우리 고장을 방문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을 뜨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오늘 남다른 열정과 집념으로 지역과 사회발전에 크게 기여하신 공적으로 자랑스러운 『군민의 장』 영예를 안으신 네 분의 수상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그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여러분!

예로부터 우리 장수는 평화롭고 순후한 지역적 정서를 가지고 있으면서 나라가 어려울 때 구국의 대열에서 앞장섰고, 윤리와 도덕을 중시하는 선현들이 많았으며, 효부와 열녀가 많이 배출되어 2덕3절5의가 있는 애국 충절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중의 한분이신 의암 주논개님은 임진왜란이라는 국난의 위기에 나라를 구하겠다는 구국의 일념 하나로 19세의 꽃다운 젊음을 나라를 위해 바치신 분이기에 우리 군민을 대표하는 일이 되었으며, 만인의 귀감이요, 정신적 지주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가슴깊이 되새기고 후대까지 기리기리 계승, 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그분이 탄생하신 오늘을 군민의 날로 정하고 군민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매년 행사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군민 모두는 오늘의 날에 즈음하여 그분의 숭고한 정신을 승화 발전시켜 나감으로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세대들이 논개사를 바로 알고 우리 민족의 정신적 지주로 자리 매김 하는 데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며, 이러한 논개님 정신 바탕 위에 장수군 발전의 기틀을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제35회 장수군민의 날을 맞이하여 군민 모두의 역량과 슬기를 모으는 화합의 한마당 축제와, 즐겁고 유익한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끝으로 그동안 오늘의 행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관계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충만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8일

장수군의회 의장 김 홍 기

| 축사 |



먼저 풍성한 수확의 계절을 맞이하여 의암 주논개님의 탄신 428주년을 기리는 제전과 함께 제35회 군민의날 행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예기치 못했던 태풍 '루사'로 많은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한해 농사를 알차게 마무리해 주신 군민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젊음을 나라에 바친 주논개님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본 행사를 마련해 주신 의암주논개정선양회와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 이 자리를 빌어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존경하는 장수군민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사를 빛내주시기 위해 참석하신 내외귀빈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400여년전 의암 주논개님은 임진왜란의 위태로운 국난시기에 나라를 구하려고 적장을 꺼안고 남강에 몸을 던져 열아홉 꽃다운 젊음을 나라에 바침으로서 한국여인의 충절을 표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충의는 만고에 길이 빛나는 귀감이 되고 있으며, 군민 모두가 하나가 되어 주논개님을 추앙하고 군민행사로 승화시키고자 함은 충의의 고장으로서는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보다 잘 사는 장수군으로 만들어 가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겨있다 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께서는 의암 주논개님의 우국충정의 높은 뜻을 받드는 가운데 더욱 화합과 단결하여 장수군의 발전에 큰 힘이 되어 주시기를 진정으로 바라겠습니다.

더불어 의암 주논개 대축제가 지역차원의 축제를 넘어 전국 규모의 문화제전으로 모두가 세계화를 이루는 제전에도 한 걸음 다가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대축제를 계기로 장수군민의 자긍심이 더 한층 높아지고 나아가서는 군민 모두가 단결하고 화합하는 장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마지 않습니다.

끝으로 의암 주논개 대축제 준비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에게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장수군의 무궁한 번창과 더불어 군민 모두의 건승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2년 10월 8일

전라북도의회 의장 유철갑



의암 주논개 대축제 발자취



의암 주논개 대축제 발자취



장수의 표상 (二德 · 三節 · 五義)

이덕(二德)

방촌 황희(黃喜)

- 1363 (고려 공민왕 12) 출생~1452 (이조 문종 2) 사망
- 아버지 균서가 장수현감으로 있을 당시 장수현 수내면 선창리 내아에서 출생
- 시호는 익성(翼成), 처음 이름은 수로(壽老)
- 1383 진사에 합격, 1389 문과에 급제, 1390 성균관 학관
- 고려가 망하자 두문동에 은거, 조선 태조의 간청으로 1394(태조 3) 성균관 학관
- 1400 형조·예조·병조·이조판서, 우사간 대부
- 1418~1422 세자(양명대군) 폐출에 반대, 장계면 금덕리 유배
- 1427 좌의정, 1430 탄핵으로 파직
- 1431~1449 영의정
- 인품이 월만하고 생활이 청렴한 명신으로 후세 추앙
- 세종의 묘정에 배향, 파주의 방촌 명당, 상주의 옥동서원, 장수의 창계서원
- 황희의 묘 : 경기도 파주군 탄현면 금승리



◀ 방촌 황희 선생 동상 (장수읍 방촌공원내)

정신재 백장(靜愼濟 白莊)

- 1342 (고려 충혜왕 3년) 출생~1418. 10. 15 사망
- 휘는 장(莊), 자(字)는 명(明), 시호는 충숙(忠肅), 관향은 水原
- 1357 (공민왕 6) 성균관 진사시 포은 정몽주 선생으로부터 사사, 역학과 경서에 능함
- 1396년(태조 5) 해미땅으로 유배
- 1405년(태종 5) 장계면 월강리 유배
- 고려왕조가 무너지자 치악산에 은둔, 태종(1405)이 이조판서, 집현전 대제학, 세자 사부에 재수 특명을 하였으나 거절
- 1418 (태종 18) 황희 정승이 장수로 유배되어 백장선생을 조석으로 문안드림
- 태종, 세종조 이조판서를 지낸 큰 손서 송보산과 김남택이 처조부를 모시기 위해 벼슬을 버리고 낙향함.
- 1828년 월강사 창건 : 백장을 주벽으로 송보산, 김남택, 최경회등을 배향



◀ 정신재 백장 선생 묘소(장계면 금덕리)

장수의 표상(二德 · 三節 · 五義)

삼절(三節)

의암 주논개(義岩 朱論介)

- 신안주씨 부(달문), 모(밀양박씨), 1574. 9. 3 출생(4甲戌)
- 1591. 장수현감 최경회와 결혼
- 1592. 임진왜란시 최경회가 장수에서 의병 모집
- 1593. 6. 29 제2차 전투에서 진주성 함락
- 1593. 7. 7 적장 게야무라 로꾸스케(毛谷村六助)를 안고 남강에 순절
- 논개에 관한 유적
- 1625. 남강바위 "義岩"이라 새김 (정대웅)
- 1722. 진주에 의암 사적비 (최진한)
- 1740. 진주에 의기사 건립(남덕하)
- 1846. 장수 논개사당에 "축석의기 논개생장향수명비" (정주석)
- 1954~1956. 남산에 의암사 건립
- 1960. 논개생가지에 "의암주논개랑 생

- 가지사적불망비" (김상근)
- 1987. 생가지 현위치 이전
- 1980. 주촌 초등학교에 동상 건립
- 1986년 동상 이전 (배형식)
- 1955. 논개영정 (김은호 화백)
- 1955. 사액 "의암사" 현판 (함태영 부통령)
- 1996. 의암 신안주씨 논개지여 정려각 (김상두)
- 기록
- 1621경 어우야담 : 유몽인
- 1617 (광해군 9) 동국신속 삼강행실록
- 1651 (효종 2) 양곡집 : 오두인
- 1779 (정조 3) 진주의기사기 : 정약용
- 1800 (순조원년) 호남절의록
- 1839 (헌종 5) 호남삼강록
- 1872 (고종 4) 호남읍지
- 1910 일사유기 : 장지연
- 1996 논개실기, 이애미 논개, 97 장수의 표상



▲ 의암사(장수읍 두산리)



▲ 타루공원(천천면 장판리)



▲ 장수향교(장수읍 장수리)

순의리 백씨(殉義吏 白氏)

- 1678 (숙종 4) 3. 22 장수현감 조종면 이 전주 감영 출장
- 현 장판리에 이르렀을 때 장끼 한 마리가 소리치며 뛰어 오름
- 이에 말이 놀라 마부가 말고삐를 놓쳐 현감이 말과 함께 송탄천에 떨어짐.
- 배리는 다하지 못한 책무를 통감. 손가락을 깨물어 암벽에 핏과 말을 그리고 "墮淚"라 새기고 현감을 따라 순절함.
- 이후 전해오는 주민들의 구전에 의하면 마부는 통인백씨, 조백비라 부르고

- 있고 현재 타루각이 서있는 자리는 1922년 조백비가 토지 소유자로 되어 있음.
- 1802 (순조 2) 현감 최수형이 타루비를 세움.
- 1881 (고종 18) 현감 이헌승이 순의리비를 세우고 타루각을 세웠음.
- 1967 도로개설로 절벽의 흔적이 사라짐.
※ 통인 : 마부라는 노비의 명칭

충복 정경손(忠僕 丁敬孫)

- 1597 (선조 30) 정유재란 당시 주민이 피난을 모두 떠났음.
- 향교 지기인 정경손은 총.칼로 위협하며, 성전을 불사르려한 왜군에게 몸으로 저지하자
- 기개에 감복한 왜장은 "어떤 사람이든 성전에 들어가지 말라"는 신표를 붙임.

- 이로 인해 전국에서 유일하게 원형이 잘 보존된 향교가 됨.
- 1846. "호성 충복 정경손 수명비"를 향교 앞에 세움
- 1976. 부강문(외삼문) 좌측으로 옮김

백용성 조사(白龍城 祖師)

- 1864. 번암면 죽림리에서 출생, 1940 열반 • 자는 白相圭, 관향 水原
- 14세에 남원의 덕밀암으로 출가
- 19세에 해인사에서 화월스님을 은사, 해조율사를 계사로 정식 출가
- 1911. 서울 선당교당을 세워 3천여명 포교
- 1919. 3. 1 독립선언서에 불교계 대표로 서명(만해 한용운 스님의 스승)
- 10만여권의 불교서적(경전과 어록) 발간
- 선농일치의 이상적 수도 주창(경남 함양 백운산에 30여정보의 화과원 조성)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1998. 3월의 독립운동가 지정 (국가보훈처)
- 1998. 4 유허비 건립 (번암 죽림)

▶ 백용성 조사 생가지-죽림정사(번암면 죽림리)



전해산 장군(全海山 將軍)

- 1879. 오수면 국평리 출생, 1885. 번암 대론 이거
- 1910. 7. 19 대구 형무소 사망
- 1910. 9. 8 부인 자결
- 이름 基泓, 자는 수용, 호는 해산, 관향은 天安
- 1907년 군대해산 통분. 스스로 의병을 일으킴
- 1908. "대동창의단" 의병장
- 광주, 무안, 함평, 다주, 장성, 순창 등 3년 7기 회 전투
- 1962. 건국공로훈장 복장 추서
- 대론 원촌 마을 앞 쌍분 분묘가 있음
- 노단 번암초등학교 앞 추모비 세움



▲ 의사 전해산 추모비 (번암면 노단리)

정인승 박사(鄭寅承 博士)

- 1897. 계북면 양악에서 출생
- 1925~1935 고창고보 조선어, 영어를 가르침
- 1936~1940 "한글 맞춤법 통일안" 수정 및 기초 위원
- 1953. 문교부 국어심의회 위원
- 1957. 국정교과서 편찬위원회 위원
- 훈민정음 연구, 용비어천가 해설, 동국정운 등을 연구하였고
- "눈의 글" "31의 글" 등 많은 저서를 남김
- 1962. 건국공로훈장
- 1997. 유허비 건립(계북 양악)



▲ 정인승 선생 유허비 (계북면 양악리)

▼ 의병대장 문태서, 박춘실 전적비(계북면 양악리)

문태서 장군 (文泰瑞 將軍)

- 1880. 서상면 장수동 출생, 1897. 계북 당 저 이거
- 1905. 을사보호조약후 의병활동에 참여
- 1912. 함양군 서상면에서 체포, 1913. 2. 4 옥중 자결
- 1962. 건국훈장 대통령장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전적비 : 문태서 전승 기공비 (구천동)
- 의병장 문태서 기공비(안의)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김상두)

박춘실 장군(朴春實 將軍)

- 1875. 계북면 백암 출생, 1914. 6. 4 전주 형무소 자결
- 1905. 을사보호조약에 분개, 용담 구봉산 등지에서 의병 활동
- 1905. 5년간 60여 차례 전투
- 1977.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 분묘 : 대전 국립묘지
- 1997. 4. 양악 입구에 전적비 세움(김상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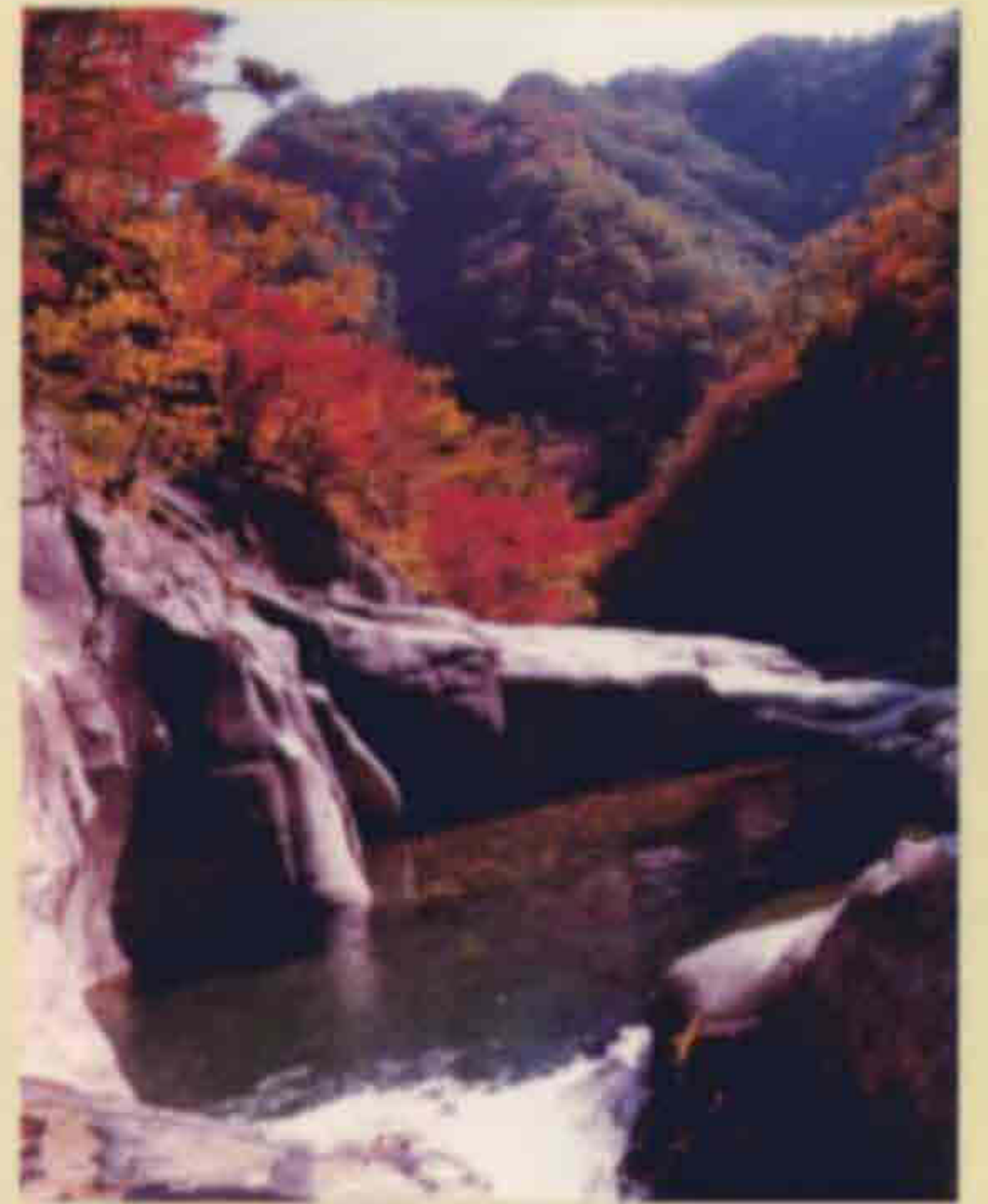


우 리 고 장 관 광 명 소



▲ 장안산 군립공원

조선 8대 종산이기도 한 장안산은 가을철 광활한 억새밭과 정상에서 바라본 겨울철 설경이 절경이다.



▶ 덕산용소

용이 살았다는 전설이 있으며 바위 사이로 흐르는 청류수는 은쟁반에 옥구슬 구르는 소리와 같다.



▶ 지지계곡

가을 단풍이 장관을 이루며, 산자수명하여 사계절 관광지 로 각광받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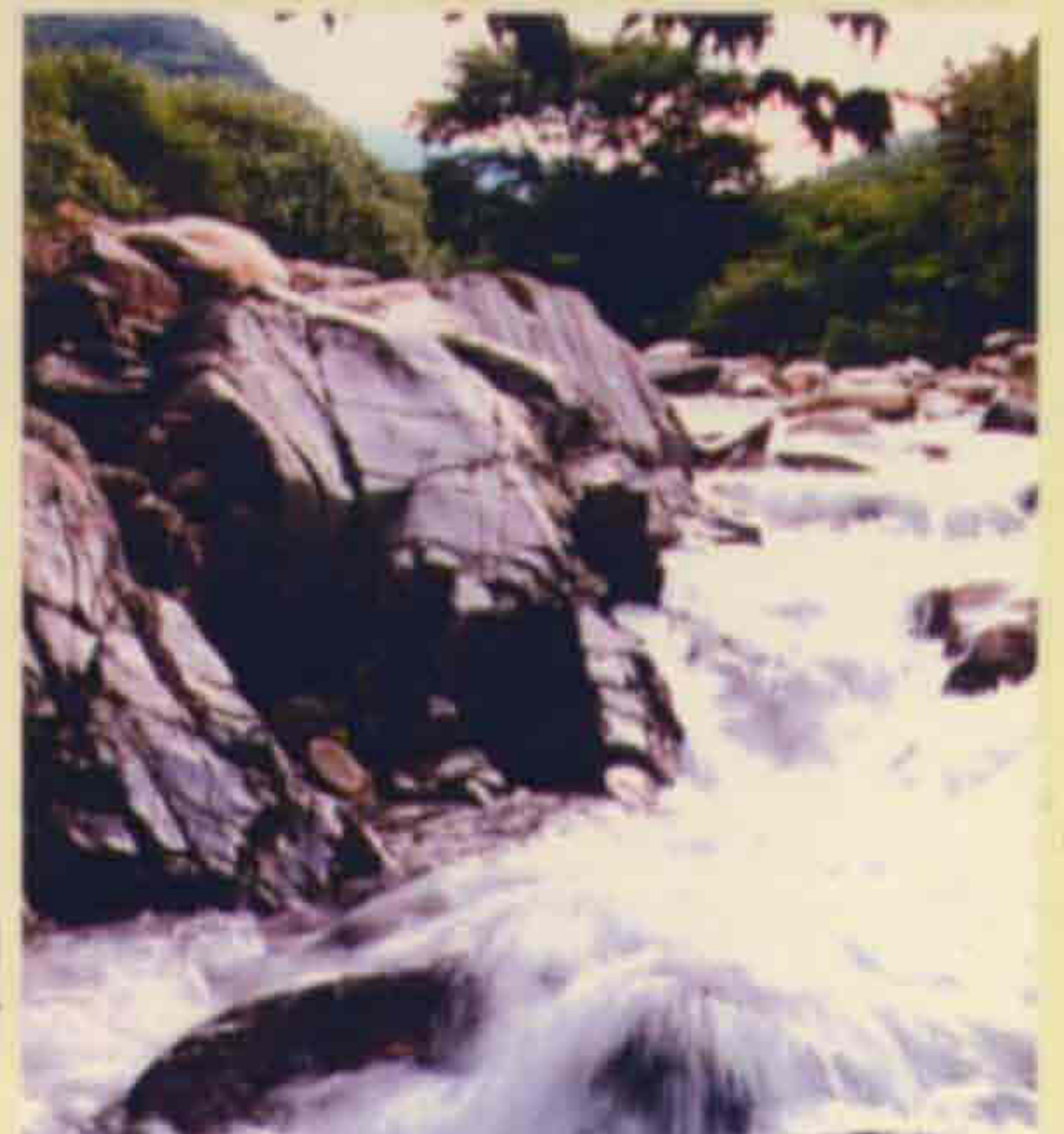


▲ 방화동가족휴가촌

오토캠핑장 시설을 갖춘 심산유곡의 휴양지로서 여름철 가족단위 캠프장으로 최적지이다.

▼ 와룡자연휴양림

와룡계곡의 자연림내에 연수의 집, 산막, 물·눈썰매장, 물놀이장, 잔디광장등 각종 휴양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어 도심의 피로를 풀고 심신을 단련하기에 최적지이다.



▶ 토목동 계곡

남덕유산의 여러 골짜기 중 가장 웅장하고 수려한 계곡이다.



▲ 사 과
장수는 산간 고랭지대로 주야 일교차가 커 사과재배 적지로서 당도가 높고 맛과 향이 독특한 사과를 생산, 전국제일의 사과로 각광을 받고 있다.



▲ 오미자



▲ 석 기



▲ 토종돼지

▼ 버 루



한 우 ▶





사랑이 있는 사회, 나눔이 있는 사회 한국마사회가 함께 합니다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시행, 마필개량 증식, 경마수익금의 사회환원 등을 통해 국민의 여가선용, 마사진흥, 축산발전 및 사회공익에 기여할 목적으로 설립된 농림부 산하의 비영리 특별법인입니다.
경마수익금은 축산발전기금, 농어촌 장학사업, 농어촌 사회복지 증진사업, 각종 공익단체 기부금 등으로 사회에 환원되고 있습니다.



한국마사회
<http://www.kra.co.kr>

2001년도 주요사회 환원실적 레저세 등 국가 및 지방 재정기여 (12,465억원) / 축산발전기금 (1,215억원) / 농어촌장학사업 및 농어촌사회복지증진사업 (304억원) / 공익단체 등 각종기부금 (63억원)

농협

생명을 사랑하는
희망의 장수건설

“그 중심에 농협이 서겠습니다”

농협중앙회장수군지부	지부장	박길현
장수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양진기
장계농업협동조합	조합장	이택렬



HACCP 및 ISO2001획득

사계절 맑은 공기와 자연 암반수를 음용하며,
영양이 풍부한 초원에서 사육하므로 지방량이 적고 육질이 단단하여,
육색이 뛰어나 담백한 맛으로 옛맛 그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장수한우



천혜의 자연속에서 자랐습니다.
장수는 자연이 살아있는 청정지역입니다.
자연과 과학이 조화된 사양관리로
육질과 고기맛이 월등히 좋습니다.
위생적이고 항상 싱싱한 생육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장수축산업협동조합

조합장 최병옥

현대적이고 위생적인 시설로 새롭게 단장했습니다.



우진산업주식회사

전북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1316-2
TEL. (063) 353-0908
353-1018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우진산업



논 개

수주 변영로

거룩한 분노는
종교보다도 깊고
불붓는 情熱은
사랑보다도 강하다.
아. 강남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아릿답든 그 蛾眉
놉게 흔들리우며
그 石榴 속가튼 입설!
[죽음]을 입맛추었네!
아. 강남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흐르는 江물은
기리기리 푸르리니
그대의 꽃다운 혼
어이 아니 붉으랴
아. 강남콩 꽃보다도 더 푸른
그 물결 위에
양귀비 꽃보다도 더 붉은
그 마음 흘러라



논개생가지 전경



논개사당 전경



The Euiam Ju Nongae Festival
- Memorial of her 428th birth